

'낭만적 인문주의자'의 현실시각

원재길 시집 「지금 눈물을 묻고 있는 자들」

기형도

시인·중앙일보 기자

원재길의 시를 읽고난 후 얼핏 떠오른 독후감은 그의 시들이 서투른 전투주의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다. 그의 시들은 삶에 쉽게 노여워하지 않으며(쉽게 노여워할 때 그 노여움은 깊이가 없기 십상이다) 쉽게 예언의 몸짓을 보여주지 않는다(쉬운 예언은 도덕적 편의주의와 통한다).

“차(비극)에 치일 위험이 가장 많은 건 차(비극)를 피한 바로 그 순간이다.” 서문에서 보듯이 원재길의 세계관은 비극 자체보다는 비극에 대한 인식태도에 긴장한다. 이러한 긴장이 문학 속에 스며들 때 그의 시들은 비극의 ‘통제된 상상력’으로 나타난다. 이는 80년대 대부분의 시인들이 민중과 해체를 격렬하게 양식화, 전투 혹은 모험의 부피를 쏟아내고 있을 때 그는 묵묵히 혼자서 삶을 읽고 그것을 진지하게 기록해왔다는 점과 닿아 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인식이며, 그 인식은 낱말의 시편에 시인의 ‘발언’ 보다는 시인의 ‘시선’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동시대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지만 자신의 ‘발언’ 역시 억압의 일종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 그만큼 그의 시들은 신중하며 서투른 모험을 배격한다.

그의 시는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그가 ‘서정의 힘’을 신봉하는 데서 비롯되나, 비극을 깨끗한 빨래처럼 조형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아름다움과 다른 길을 걷는다.

그의 시들은 상당수가 나무·비·길·새·들풀·구름·물언덕·별빛 등 자연적 이미지를 통한 서정적 잠언으로 끝맺음하고 있으며, 이같은 잠언들은 궁극적으로 고단하고 억압적

인 현실이 다달아야 할 ‘따뜻한 세상’을 지향한다. 우리는 원재길의 세계관을 ‘낭만적 인문주의자’의 그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인문주의는 대개 ‘비유화된 이성’으로 나타난다. 결국 그의 시가 동시에 젊은 시인들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문학으로부터 분별성을 획득하고 개성적 세계를 구축하는 힘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적도 하고 싶다. 우선 그의 지나칠이만큼 절제된 형식미학은 엄격한 문학수업을 거친 자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비극적 상상력의 파장을 규격화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또한 그의 신중한 세상 읽기는 윤리적 통념과 결합할 때 엄숙주의로 나타나며, 그러할 때 그의 시는 이따금 신선감을 잃는다. 이같은 지적은 인문주의가 빠질 수 있는 일반적인 함정과도 관계한다.

「지금 눈물을 묻고 있는 자들」은 그의 첫 시집이다. 그의 시들은 위험하다고 고함치는 대신 위험 앞에서 방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팔을 잡아준다. 따뜻한 나라를 꿈꾸는 것은 고향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이다. “갑시다/어디든/못 이르겠어요”(p51)이 귀절은 어쩌면 이 시집 전체를 요약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그러나 ‘어디’가 아니라 ‘어디든’이며, ‘어디든’을 단순한 낙관주의로 해석할 때 우리는 원재길의 시를 오독하기 쉽다.

「雪原 속으로」 「라스트 신」, 「門間을 바라보며」 「별針」 「一家」 「폭발주의보」 「잠깐의 평화」 「그들도 피할수 없는게 있다」 등은 세밀하게 분석하고 싶은 시들로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문학과비평사/B6신/124면/2000년

복고적인 새로움의 詩

송재학 시집 「얼음시집」

장정일

시인·극작가

세련된 수사와 기법의 비대발달이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시에 깊이 입맛을 들인 80년대 시 독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송재학의 시는 80년대 시와는 확실히 남다른 새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새로움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복고적인 새로움이다.

80년대에 등장했거나 80년대 들어 활발한 詩作을 했던 일군의 젊은 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60년대 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요설과 형태파괴, 일상화법, 의식의 외향성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송재학의 시는 60년대 시를 다시 대하는 새로움과 즐거움을 안겨준다.

예컨대, 그의 첫시집인 「얼음시집」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생목, 유암, 가근, 사교, 단애, 만조, 오수, 몽유 따위의 단어들은 명사의 수식을 통해 시적 사유를 행하고 전달했던 60년대 특유의 시법으로, 80년대 시인들이 폐기처분한 단어들이다(게다가 위의 단어들은 모두 한자어로 되어있다!). 그리고 박절기로 끊어내는 듯한 언어/리듬감각은 낯설음과 함께 신선감을 안겨준다.

시작품 내에서의 사유와 시작품 자체의 리듬을 자의적으로 간섭하는 듯한 이런 기법의 언어/리듬감각은 분명 60년대에 활동했던 ‘현대시’ 동인들의 그것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언어/리듬감각은 ‘시는 언어의 절약’이라는 60년대 시인들의 詩觀과 연결되어 있다.

추측이지만, 송재학의 문학수업 시절에 그의 바로 전 세대였던 ‘현대시’ 동인들의 시가 그의 문학적 규범이 되었으리란 점을 생각하

면, 그의 복고성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수업의 영향이라기보다 더 체질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과감한 시형식의 파괴 혹은 해체적 시형식의 확장을 보여주는 몇몇 시들이 「입암 땅 긴 세월」 「적막한 사람」 등에서까지도, 시집 전체를 일관해서 보여주던 차가운 내면음성과 감정억제—슬픔을 이야기하면서도 얼굴은 일그러지지 않는 두 얼굴의 인내—를 흐트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의 복고성향은 단순한 습득의 것이 아닌, 작가의 체질 또는 미덕에 속하는 것이란 느낌을 절게 한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말했듯이, 80년대의 시는 수사적으로만 세련되고, 기법과 형식만이 비대발달해가는 폐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그런 수사취미와 기법, 형식의 발달이 요설과 선부른 자기폭로, 말초적 흥미유발 등과 야합하여 점차 들떠가는 이때에 송재학의 시들, 그리고 그가 구사하는 복고적인 진중함, 즉 자기의식적인 내면음성, 감정억제, 절약적인 언어사용 등은 하나의 치료책으로서 80년대 시단에 기여될 것들이다.

문학과비평사/B6신/106면/2000년

시단 개관

겨울시단의 풍성한 수확

동면이라는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시집들이 많이 출간되어 시독자들을 바쁘게 하고 있다. 80년대 들어서 詩의 상품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등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인들도 두세번째 시집을 펴낼 정도로 왕성한 출판량을 보이고 있다.

문단에서 ‘스타제조실’이라 불리고 있는 민음사에서 최근 중견시인 김영태의 「느리고 무겁게 그리고 우울하게」를 비롯, 문학평론가 최동호교수(고려대)의 「아침책상」과 젊은 시인 河在鳳씨의 「안개와 불」을 펴내 독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등단한 지 9년만에 첫 시집을 낸 하재봉씨의 시집에 대해 김훈기자(한국일보 문화부)는 “대체로 그의 시들은 합일된 시간의 따스함이나 비옥함을 노래하기보다는 거기에 도달하려는 또는 도달하지 못하는 유폐된 자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나남에선 한때 문학월간지 「문학사상」을 편집했으며 최근까지 미국에 체류한 여성시인 李明子씨의 시집 「別祭」와 요즘 소설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李昇夏시인의 두번

째 시집 「우리들의 유토피아」를 펴냈다. 특히 「우리들의 유토피아」는 그의 첫시집 「사랑의 탐구」와 달리 매우 실험적이고 형태파괴적인 작품을 싣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학사상사에선 중견시인 吳世榮, 朴堤千씨의 「불타는 물」과 「老子詩篇」을 출간했다. 전통적 정서를 담담한 가락에 실어 들려주는 「불타는 물」과 모순어법의 경지에 이른 시인의 치열한 탐구를 엿보게 해주는 「노자시편」은 시단의 유행과는 별도로 주목을 끄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문학과비평사도 88년말 「머나먼 곳 스와니」(金明仁) 「天路歷程」, 혹은 「김정웅」 「쫓팽이처럼」(金光圭) 「본동에 내리는 비」(윤중호) 「얼음시집」(송재학) 등을 일제히 펴내 90년대

를 앞둔 시단의 지각변동을 탐사하고 있다. 이중에서 「東豆川」의 세계를 보다 확대시킨 김명인씨의 두번째 시집 「머나먼 곳 스와니」는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화가 조화롭게 맞물린 경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송재학씨의 시들은 현실의 저편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문학적 순례자의 고단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밖에 한겨레, 오상, 동국출판사, 청노루 등의 출판사에서 새롭게 시집 시리즈를 기획·출판하고 있어 시집출판의 저변이 날로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집의 양적 증가가 곧 질적 고평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데 비평가들의 시각은 일치하고 있다.

—남진우 기자